



연례총회의 메시지가 재정상의 고뇌를 해결

A message from Annual Meeting lifts financial woes

지나 아머 (Gina R. M. Armer)

저널 온라인판 (Journal online)

2011년 9월 19일

지난 6월 모교회의 연례총회 다음날은 나에게 있어서 “축복으로 가득한”(과학과 건강 vii 쪽) 날 이었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수 많은 미국 사람들과 같이, 나에게 있어서도 지나온 올 해는 재정적 도전들로 가득했었다. 솔직히 말해, 때로는 겁에 질리기도 했었다.

내가 살고 있는 아이다호주 동남부에는 크리스천 사이언스 교회가 없다. 그래서 나는 모교회에서 내보내는 웹 방송을 통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즐기고 있으며, 지난 여러 해 동안 했던 것처럼, 올 해에도 웹 방송을 통해 연례총회에 참여하였다. 나의 재정적 상황을 고려할 때, 나는 회계 담당인 네드 오데가드의 돈에 대한 언급, 즉 만일 대화에 있어서 돈이 중심이 되는 주제라면, 그것은 심층팔구 절대 호감을 주는 것일 수 없으리라고 한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다. 나는 제 2 독자인 마리안 잉글리쉬가 이야기했던 번영에 대한 정의, 즉 번성하는, 성장하는, 증가하는 것이라는 정의를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리고 나를 정말로 공감시켰던 것은 마이클 팍스트의 변화에 대한 의견이었다. 그가 말하기를 우리는 변화에 대해 두려워해서도 안 되지만, 또한 변화 없음에 대해서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그는 핵심적으로 변화는 영적 성장의 결과여야만 하는 것이지, 어떤 “구세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함으로써 그것을 요약하였다.

나는 한 동안 내가 변화를 나의 재정적 난관으로부터의 어떤 “구세주”인 것처럼 추구해오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내가 새롭고 더 보수가 좋은 일자리를 필요로 한다는 것에, 이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물건들을 팔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변화를 필요로 한다는 것에 사로잡혀 있었다.

나는 나의 기초생활비 외의 지출은 대폭 줄이고, 내가 자격 조건이 되는 고 수입의 여러 직장들에 지원을 하고, 내 주택융자를 별도 차입금으로 상환하려고 노력하고, 심지어는 미국 정부의 부실자산구조조정 프로그램 선택을 고려하기까지 하는 등 여러 가지 실제적으로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이미 취해놓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소위 큰 그림 상의 “변화들”은 그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는 여전히 사랑 받는 아들이었으며, 여전히 똑 같은 높은 신분으로 여겨졌다.

드디어, 지난 2월, 나는 내 비자카드 계정이 있는 신용조합의 회원 서비스 부서와 대화를 하도록 하게끔 되었다. 나는 결제 금액을 갚을 수 없었던 것이다.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최악의 부분은 내가 과연 언제 다시 결제 금액 전체를 갚을 능력이 있게 되거나 할지 상상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계속하여 자신을 탓하고 있었다, 즉 이런 궁지에 빠지게 된 것은 나 자신의 잘못이라는 것이었다. 나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내가 내려왔던 여러 가지의 모든 재정과 관련된 판단들을 마음 속에서 반복하여 되풀이하고 있었다. 나는 “방탕하게 살면서 내 재산을 낭비”해버리지 않았던가?(누가복음 15 장 13 절) 멀리 간 해외 여행도 없었고, 화려한 의상도 고급 차도 없어서 방탕하게 산 것으로는 느껴지지 않았다, 나에게는

For this translation in English and other translations in Korean, please see <http://translations.christianscience.com/translations/list/lang/Korean>.

Translation © 2011 The Christian Science Publishing Society
This translation has been performed by Mother Church members in the Field and made available by agreement with The Christian Science Publishing Society. You may reproduce up to 100 print copies of this Article. You may not sell or reprint this Article in another publication without permission of CSPA. You may not post or embed this Article on other websites; instead please link to the Article on the CSPA website.

평면 텔레비전조차도 없었다! 그러나 분명하게도, 최소한 인간적 의미에서 내가 내 수입의 한계를 넘어 과도하게 소비하며 살아온 듯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쩌면 나는 스스로 파놓은 구덩이로부터의 구원이나 구출을 받을 자격이 없을지 모르는 일이었다. 어쩌면 나는 파산, 유질처분 그리고 신용불량이라는 수치와 불명예를 견뎌야만 할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렇다, 그것이 연례총회의 메시지가 그로부터 나를 구출했던 마음의 상태이었다. 나의 재정적 상황에 앞서, 변화의 필요가 있었던 맨 첫 번째 것은 나의 생각이었기 때문이었다. “누가 죄를 지은 것이니이까, 이 사람이니이까, 아니면 그의 부모니이까?”(요한복음 9 장 2 절)라는 질문이 떠올랐다. 나는 이런 식의 생각이, 그것이 무엇으로 보이든 간에, “병이 든” 상황을 정당화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 경우에는, 나는 나의 재정적 상황을 탓함을 통해 정당화하려고 시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성경의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 나오는 “방탕한 생활”이라는 인용으로 생각이 계속하여 돌아갔다. 나는 작은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돌아갔을 때, 그의 무모한 낭비에도 불구하고 지위나 지체에 있어서 조금도 잃은 것이 없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그는 여전히 사랑 받는 아들이었고, 여전히 똑 같은 높은 신분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만약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사실이었다면, 나에게 있어서도 사실일 것이었다, 즉 나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딸이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모든 책망을 들어냄에 의해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녀들로 봄으로써
그들을 축복하라.*

이런 깨달음이 재정적 곤란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참된 연민을 갖도록 또 나를 도와주었다. 과거에는, 자신들의 집에 대해 유질 처분을 받거나, 파산을 신청하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나는 때로 그들이 이것을 스스로 자초한 것일까? 라고 의아해 했었다. 이제 나는 그런 식의 생각의 잘못됨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여기 단지 미국에서뿐 아니라, 온 세상의 수 백만의 사람들이 어떻게 재정적으로 몸부림하고 있을지를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그들로부터 모든 책망을 들어냄에 의해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녀들로 봄으로써 어떻게 그들을 가장 잘 보고 축복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만일 나의 외관상 불가항력적인 재정적 상황에 대한 어떤 인간적 정당화도 없다면, 만일 내가 책망 받을 대상이 아니라면, 만일 내가 제일 먼저 나의 영적 정체성에 대한 진리를 볼 수 있다면, 그렇다면 내가 어떤 인간적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러자, 바로 다음 단계가 이어졌다. 그것은 신용조합이 나에게 석 달 동안은 이자만 갚아도 된다는 제안을 하는 형식으로 전개되었다. 나는 장기적으로 그런 방법이 어떻게 나를 돕게 될지, 또는 그렇게 줄어드는 액수의 돈일망정 어떻게 갚거나 할 수 있을지 도저히 알 수 없었지만, 나는 다가오는 하루하루, 하나하나의 축복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다음 석 달 동안 나의 다른 모든 계좌들과 주택융자금을 현상유지하면서 이 이자만 갚는 약속을 성공적으로 준수하였다. 신용조합의 이자만 갚는 조정안이 종결이 되었을 때, 나는 나의 전반적 상황을 설명한, 그리고 마당 세일, 경매로 물건 팔기, 그리고 여러 방법으로 지출 줄이기를 포함한 나의 재정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이미 취해오고 있던 변화들을 열거한 편지를 썼다.

변화는 영적 성장의 결과이어야만 하는 것이지, 어떤 “구세주”는 아니다.

6 월 7 일 그러니까 연례총회의 웹 방송 이튿날, 신용조합은 나의 비자 결제금을 7 년 상환의 개인 대출 계약으로 대체하자는 제안을 해왔는데 이렇게 하면 매달 갚아야 할 돈이 30%이상 줄어드는 것이었다. 또 같은 날, 인간적인 감각으로는 “정말 뜻밖” 이라고 할 수 있는, 몇 달 전 같이 작업을 했던 주택부금 중개인으로부터의 연락이 있었다. 그녀는 자기들 은행의 규정이 최근 어떻게 조정되었는지 설명하고, 따라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의 두 건의 주택융자를 훨씬 낮은 고정 이율을 가진 새로운 단일 계좌로 만들도록 재

Translation © 2011 The Christian Science Publishing Society

This translation has been performed by Mother Church members in the Field and made available by agreement with The Christian Science Publishing Society. You may reproduce up to 100 print copies of this Article. You may not sell or reprint this Article in another publication without permission of CSPA. You may not post or embed this Article on other websites; instead please link to the Article on the CSPA website.

용자를 신청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그렇게 되면 내가 지불해야 하는 액수를 상당한 돈이 되는 20%나 줄일 수 있는 것이었다.

최종적으로, 나는 또한 현재의 일자리에서, 최근 몇 년 간의 봉급과 같은 수준을 조건으로 계약을 일년 연장하였다. 나는 나의 재정적 상황에 대한 해법을 찾는다는 함은 물리적 변화를, 즉 이사를 하고 어딘가 다른 곳에서 더 많은 돈을 받고 보람이 있는 자리를 시작하는 흥분에 휩싸이게 될 필요가 있음을, 뜻할 것으로 생각해오고 있었던 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현재의 위치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번창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마이클 팜스트가 변화란 영적 성장의 결과이어야만 하는 것이지 어떤 “구세주”는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 그가 옳았다. 세상에는 오직 한 분의 구세주, 그리스도 예수가 있을 뿐이며, 그분이 우리에게 **마음**이신 **하나님**이 모든 상황에서 전능하시고 모든 권능이 시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한 보여주기를 계속하신다. 우리가 정말로 만들 필요가 있는 유일한 변화는 순간순간 이 무한한 **마음**에 의존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모든 다른 필요한 조정은 그것의 적절한 장소에 자리잡게 될 것이다.

지나 아머는 동 아이다호 기술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 그녀는 최근 “성인 교육에 대한 메리 베이커 에디의 기여”라는 제목으로 박사학위 논문 집필을 완수하였다.